

숫골마을과 자매결연 한국은행 직원

6년째 주말농장 체험 및 봉사활동 펼쳐

한국은행 직원들은 8월15일 자매결연 마을인 관인면 숫골마을을 방문해 주말농장 체험 및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6번째 방문인 한국은행은 직원 및 가족 60명이 방문하여 옥수수 따기, 고구마순따기 등의 주말농장 체험, 동물농장내 동물먹이 주기 체험, 고추따기 등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한 한국은행 직원들은 오가는 길이 멀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굵은 팥방울을 흘리며 수확의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농촌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을이장과 주민들은 멀리서 찾아온 한국은행 직원 및 가족들에게 시골의 훈훈한 인심을 가득 담은 맛있는 점심과 주말체험에서 수확한 옥수수, 감자를 간식으로 대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은행은 2005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숫골마을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통한 일손돕기에 앞장서 왔으며, 숫골마을의 특산물인 숫골자면미, 사과 등을 구매하는 등 농



한국은행 직원과 가족들은 8월15일 자매결연 마을인 관인면 숫골마을을 방문해 주말농장 체험 및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한 어린이가 소 먹이를 주고 있다.)

촌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결혼이민자 적응프로그램 운영

8월10일부터 12월21일까지 4개월간

포천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원만한 의사소통과 한국문화의 이해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 및 국내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적응 프로그램은 8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4개월간 여성회관에서 매주 월·금요일 3시간씩 무료로 운영되어 교육생들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한글교육, 한국 음식교육, 부모교육, 예절교육, 우 리고정 문화답사 등 다채로운 주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시간동안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이돌보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교육생이 교육 받을 동안 아이를 돌봐 주어 보육 걱정도 덜게 돼 교육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원만한 의사소통과 한국문화의 이해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 및 국내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세이

비 내리는 날에 버려진 우산

무작정 비오는 날이 좋을 때도 있었다. 낙수를 떨어지는 소리에 도 정감을 느껴 한없이 바라보며 생각속에서 멀어졌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리워하고.....

초가집이 좋은 이유를 지금 생각해야 깊이 깨닫게 된다. 물론 흙벽집이기 때문에 오랜장마에도 고온다습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방이 녹녹하다 싶으면 살좌 굴불기 지켜주면 금세 보송보송 해지기 때문에 비오는 날 책이라도 읽다가 잠이 들면 꿀맛 같은 단잠을 만끽할 수도 있었다.

지금처럼 생활에 불편없이 가진 제품이란 걸 구경도 못하니 그 흔한 벽시계도 한 집에 겨우 하나 정도 안방에 걸어놓고 손바닥만한 내 방에서는 작은 책상과 책꽂이 그리고 벽에 걸어 놓는 옷이 서너개 있을 뿐.... 그러기에 실컷 자고 나면 흐린 날씨가 시간을 분

간 못해 후다닥 놀라 학교 늦었다 고 울상을 하면 언니 오빠가 웃음을 참지 못해 난다.

그래도 순간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허둥대면 정신 차리라고 오빠가 매서운 꼴뻘을 이마에 뽀뽀 주면 그때야야 아내가 낯살을 찜구나 하고 깨닫는다.

사실 비오는 날 십리길이나 되는 학교에 가는 것이 큰 고역이었다. 우산이 있을까? 모자 달린 비옷을 코트마냥 입으면 풍기가 통하지 않아 학교에 도착하면 비 맞은거나 땀에 젖은 거나 거기서 거기다.

요즘같은 장마철에 학교 주변에 마구 버려진 우산을 자주 본다. 물질만능 시대에 부족함을 모르는 절없는 아이들이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버린다. 훼손된 것도 있지만 멀쩡한 것을 버리는 것도 많다. 생활습관이 검소해지면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기생활을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나오되지고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강인함을 인식시켜야 할 텐데... 하나, 돌봐주지 않는 자식을 낳지 않는 세상에선 너나없이 과보호 속에 자라고 있으니.....

방학기간을 통해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며 우리 손주들부터 보내고 싶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데 더 무슨 욕심을 부릴까?

배고파서 밤이 고마운 줄 알아만 준다고 해도 기대 효과는 만족인 것 같다.



윤순옥 포천시제2어린이회교로

자유기고

수마와 천리향의 사랑

계속되는 장마비가 내린다. 폭염에다 장마비에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온다. 따르릉 전화해보자. 군내면 소방대 비상. 주부명예기자라는 타이틀이 있으므로 인해 불러주는 것도 제법 있다.

군내면 사거리 쪽으로 인하여 청성공원에서 쏟아져 내린 마사와 진흙을 제거하느라 분주하다. 이선구 군내면 의용소방대장님을 필두로 28명이 참여해 참서, 포크레인, 도로보수, 물자동차는 거리청소, 대원들은 하나같이 비를 맞으며 흙 제거 작업에 열중이다.

비만 오면 해마다 연중행사로 분주하지만 누구하나 불평 불만 없이 전원참석 하는 모습은 참으

로 아름답다. 이선구 대장님이 처음 취임했을 당시는 물질적, 재정적으로 부족하나 어려웠다고 한다.

활동비도 아끼고 소금처럼 짠 살림살이로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부자라고... 서글서글하며 '나 착함'하고 써 있는 듯한 인상 좋은 이선구 대장님은 포천 소방서의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노력이 대단하시다.

실속있게 살림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군내 소방대에는 포크레인은 물론 기술자도 골고루 있는 기술자가 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합치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저녁노을처럼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다.

아침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은 능력중심 이성중심의 대원님들의 통합된 표상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다.

이선구 대장님은 전 대원을 동반해서 올 가을쯤엔 해외연수를 갈 예정이란다. 세계관 공동사회에 기여하는 모습도 배우고 개인의 성장과 타국의 환경과 더불어 군내면의 발전은 계속 될 것이다.

공동생활의 능력을 책임지고 효율적인 단체로 으뎌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고 내 반쪽을 찾아서 합류하고 정서 패턴이 있는 내 읍직업에서 지혜에서 살고 싶으시다. 봉사를 마치고 포천독배기의 해양국과 소주 한잔은 에너지 충전 100% 효과를 자아내고 움직이는 동체의 꽃으로 활짝 피었다.

포천시청 건설과 직원8명이 함께 참여하여 수고해 주셔서 더욱 감사했고 비가 개인 후 맑은 하늘과 눈부신 햇살처럼 행복이 가득한 군내면 의용소방대의 파이팅을 외쳐본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장

자유기고

외국인 예절교육현장 봉사

8월10일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외국인 예절교육 현장에서 포천시 시민안전구조봉사대원으로 아가씨 돌보는 봉사를 실시했다.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여러나라에서 한국남자한테 지식을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외국인들은 여성회관을 잘 몰라 신랑이 일손을 놓고 데려다 주고 가는 사람과 시어머니와 함께 온 새벽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시민안전구조봉사대원으로 1살

부터 3살까지, 또 백일도 안된 것 난아이 등 8명의 아이를 5명의 봉사대원이 돌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었다.

중국 친진이 고향인 한 얘기 엄마의 경우 아기가 우람아라서 시어머니가 힘들어 못 봐주신다고 해 데리고 나왔다며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아기가 잘 생기고 예쁜 짓을 해 구호봉사대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1시간30분 정도는 아이들이 잘

놀더니 남은 30분 동안 보채기 시작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한 아이를 달래놓으면 또 한 아이가 울고 정신 없어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주고 춤도 추며 달래보아도 소용이 없다. 대원들의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서로 웃느라 5년은 젊어진 것 같다.

교육시간이 끝나고 오후4시가 되자 엄마들이 도착하자 아기들은 반가와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다. 내 자식 키울 때는 이쁜 출

도 모르고 키웠는데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집으로 왔는데도 또 보고 싶고 힘이 들었던 도 지루 보고싶고 눈에 아픈거던 다. 구호봉사대원들이 좀더 많이 참여해 아이들도 울리지 않고 잘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본다.



이명순 주부명예기자단 소울습사단장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18

포천유소년야구단 전국대회 참가 화제

요즘을 야구계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국 150여개 유소년야구단들이 모여 펼친 제1회 KBO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야구역사가 100년을 넘고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현재 메이저리그와 일본에서 몇몇 스타선수들의 활약을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스포츠를 통한 전도사의 역할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찬호, 이승엽, 양준혁 등 세계적인 스타선수들도 유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니다. 유소년 시절의 기초적인 훈련과 교육은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유소년 야구에 대한 발전과 관심 그리고 투자가 없으면 미래의 한국야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KBO 유소년 육성 위원회의 이광환(전 LG 투수감독) 위원장의 우리 유소년야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제철, 삼성 라이온즈가 후원하고 대규모로 펼쳐진 이번 전국 대회에 우리 포천의 리틀야구단도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실력도 겨루고 많이 보고 배워 왔습니니다.

이광환 위원장 같이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그리고 추진력을 보여 주었기에 가능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뒤에서 말없이 봉사해 보여준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이 있었기에 대회가 더욱 빛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보내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교육만이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만의 책임인 듯 생각하는 한심한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 사회의 너 나없이 모두가 교육자라고 생각하고 먼저 살아온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과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근처의 도시와 비교하기에도 교육을 비롯한 모든 문화의 수준이 열악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획과 정책은 점점 도시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르면 배워서라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포천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배우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장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웰빙 부사의(不思議)

지식(知識)과 지혜(智慧) 26

우리가 일상 쓰는 말 가운데 '지식'이라는 말이 있고 '지혜'라는 말이 있다. 지식(知識)이란 의식(意識)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식(識)이란 느낀다는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이다. 살아서 느낀다는 것이다. 무엇을 느끼는가? 뜻(意)을 느끼고 감(感)을 느낀다는 것이다. 아파다.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하는 감정(感情)을 느낀다는 것이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뜻(意)을 느낀다는 것이다. 인식(認識)한다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 듣는다는 것이다. 느끼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의식(意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의식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은 육감(六感)으로 느끼고 알아듣는다. 육감이란 1)눈으로 보는 시각(視覺) 2)귀로 듣는 청각(聽覺) 3)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嗅覺) 4)혀로 맛을 보는 미각(味覺) 5)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촉각(觸覺) 그리고 6)뜻을 알아채려는 의식(意識)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일반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뜻(意)으로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동물도 그들 나름대로 의사소통(意思疏通)은 한다. 그러나 인간처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식'을 쌓아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것이다.

'지식'이 배워서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깨우쳐서 아는 것이다. 책을 통해 배우던 철학을 통해 배우던 배운다는 것은 남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남의 도움을 받아 알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노력(努力)해야 한다. 배우려는 의지(意志)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깨우친다는 것은 남을 통해 아는 게 아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다.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아는 것이다.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살아가는 과정(過程)에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물리가 트이는 것이다. 행간(行間)의 의미를 터득하는 것이다.

절에 가면 선승(禪僧)이 있고 학승(學僧)이 있다. 선승이란 참선(參禪)을 통해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을 밟는 스님을 말하는 것이고 학승이란 경전(經典)공부를 통해 지식을 넓혀나가는 스님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선승도 중요하고 학승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승보다는 선승을 나(學而知之)라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스스로 깨우치기 때문이다. 스스로 깨우치는

고행(苦行)의 길을 가기 때 문이다. 이처럼 고행을 통해 스스로 깨우쳐서 얻은 지식은 각자 지식을 각자 지(覺而知之)라 한다.

'알아서 구만리'라는 말이 있다.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理致)를 원히 안다는 것이다. 각(覺)의 경지(境地)에 들었기 때 문이다. '각의 경지'에 들었기 때 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배우지 않았어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살아오셨다. 무엇이 그들을 것처럼 지혜롭게 만들었는가? 마음이다. 맑고 밝은 마음이다.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명경지수에 비친 대로 말하고 명경지수에 비친 대로 행동했기 때 문이다. '명경지수의 경지'에 한 번 가보라. 그리하면 누구나 각(覺)이 열릴 것이다. 깨우침이 올 것이다.



이규임 한국명상학회학원장

탐방 10 대한목장



무더위가 최고조를 이루는 시기 농가에서는 옥수수 사일리지 만들기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포천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폭우와 태풍으로 농가에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 어른들이 김장을 담아 저장하여 풍요로운 겨울이 준비를 하듯이 농가에서는 사일리지를 만들어 겨울철 조사료로 급여하던 사료비도 절감되며 목장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에 위치한 대한목장(정춘기 여성분과 신북면 지부장)을 찾았다.

화성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지며 비옥유를 기르다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농사짓던 화성에 신도시가 형성되자 12년 전 포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목장부지 1천300평을 구입하여 우사에 딸린 살림집을 마련하고 젓소 12마리 규모로 목장 이름을 절에서 스님이 큰대(大)로 시작하면 좋다고 하여 대한목장으로 했다. 부부가 함께 파이프라인 시설이 갖춰진 목장에서 착유를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려주어 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한다. 축협에서 수정교육을 받아 자가 인공수정을 하며 물통은 이틀에 한번 닦아주고 우분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깨끗이 청소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소를 사람같이 대한다. 현재 대한목장은 군내 간 큰아들과

탐방 10 대한목장

탐방지원사업과 시설투자사업으로 깨끗한 목장 운영

사료가격 상승하여 낙농가 수익 감소 대책 마련해야

대학생 딸을 둔 가정으로 목장부지 2천200평에 건물300평으로 착유소 23두, 후보소 10두, 건유소 7두, 한우초임만사 5두로 총 45두를 사육하고 있다. 하루 남유량으로는 500리터며 체세포 1등급 원유를 생산하고 사료는 서울우유 주문 사료와 서울우유 배합사료 TMR을 급여하며 옥수수 5,000평을 재배하였다고 한다. 유대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사료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낙농가 수익은 점점 감소하는 요즘 장마철 태풍으로 운동장 비 가림 시설 지붕이 날아가 바닥이 질어져 걱정이란다 한다. 탐방지원사업과 시설투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하여 깨끗한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현재 대한목장은 목장부지 2천200평에 건물300평으로 착유소 23두, 후보소 10두, 건유소 7두, 한우초임만사 5두로 총 45두를 사육하고 있다.